

偶像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를 읽고(5)

姜虛峰

▽.....△

形而上學的인 機械的인 唯物般에서는 個人 乃至 그 屬性 一論 意志을 否定 또는 無視할는지 모르나 辨證法的 唯物論을 認識論的 方法論的 思惟樣式으로 한 『맑스』主義는 客觀과 主觀의 互作用體의 一方을 占有한 個人을 否定 하고는 成立하지 못한다.

『人間 自身(個人.....筆者註)은 存在(社會的 存在.....筆者註)의 一部分이다. 그리고 存在 主觀에 있어서 妥當한 形式은 客觀(個人.....筆者註)에 있어서도 또는 思惟에 있어서도 妥當하다』-『데포-르린』辨證法的 唯物論의 哲學 第七章 辨證法的 方法과 辨證法的 唯物論)

『主觀과 客觀과의 差異라는 것은 統一體로서의 相對的 差異이다. 兩者는 同一한 種類이다. 그것은 同一한 本質을 가지면서 두 가지의 形式 同一한 屬性의 二 個의 個體이다』데잇켄著.....全集 第三 卷, 一 社會主義者의 認識論的 領域에의 侵入)

▽.....△

이럼으로 權氏는 工夫가 적다고 볼 수 잇슬가 한다. 그리고 權氏는 그 評論 『偶像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』를 一貫하여 哀惜 痛嘆한 『個人氏名을 過 重視』하는 『맑스』主義學徒』들의 『認識 不足症』은 權氏의 『錯覺的 觀察』이 原因되야 그러케 보인 것에 지나지 안타고 볼 수 잇다. 『레-닝데-』랄시等等 諸 種數의 個人을 記念하는 施設을 單純히 그리고 常識的으로 考察하여 結果論的 批判에서 宗教觀念의 殘存物이라고 速斷하기 前에 그 原因動機를 分析해 볼 必要를 늦겨야 할 것이다. 權氏는 알른지 몰을른지는 아지 못하나 『마라테스타』를 指導者로 한 伊太利「이탈리아」 無政府主義運動者 等の 少年者로 組織된 青年『싸쿠닝』會가 存在하고 잇스니 이 會는 『싸쿠닝』을 記念한 會이다. 또 日本 無政府主義者로 世界的 派閥家이엇든 故大杉榮 君은

그 子息의 일흠을 모다 有名한 無政府主義者의 姓名의 웃 宇로 하엿스니 그의 長女『엔마』란 일흠은 佛蘭西人으로 亞米利加에서 活動하고 잇는 『엔마』·『골드렌』女史의 姓名의 웃 宇이다. 無政府主義 信奉者인 權氏는 이것을 쏘 엇더케 보시는지!

▽.....△

『맑쓰』主義者이런 終末的 結果論的 立場에서 個人을 記念하지안는다.

『레-닝네』는 規定한 原因 그리고 動機는 宗教的 觀念이 基礎가 되야 規定한 것은 안이다. 戰鬪的 社會運動家 『레닝』의 戰鬪性과 無産階級을 爲한 理論들과 大衆으로하야 잇지 안케하여 그를 더 發展 시키기 爲하야 『大衆에 對한 精力給與』로써 『레-닝』個人을 爲한 것이 아니라 全 無産者階級化한 戰鬪性 쏘는 그 理論을 爲하야 이것이 原因되야 規定하게 된 것이다. 『레-닝』의 戰鬪性 性과 그 理論은 『레-닝』個人의 것이 아니라 全 無産階級の 所有物이다.

맑쓰主義者는 簡單히 이렇게 一考한다.

權氏의 『偶像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』란 評論에 誤謬된 考察은 만흐나 質的으로보아 分析의 對象이 되지 못할 評論으로 봄으로 우리는 그 評論에 『一考』만 더질 썬이다. 그리고 機會가 잇스면 다시 붓을 들기로 하겟다.

一九三〇. 一. 四